

작품명 | 바다-비연결(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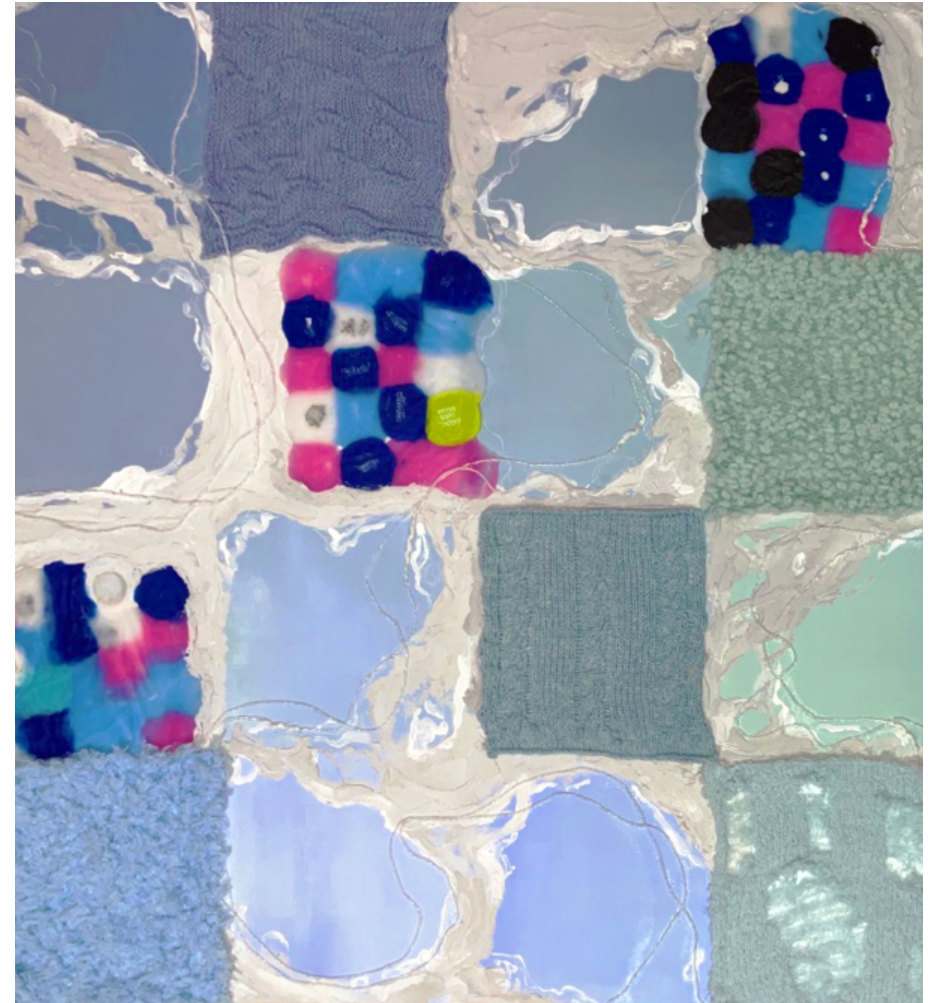


남 수 황

Nam Su Hwang

- 목원대학교 섬유패션디자인
- 제32회 대전미술대전 공예 우수상
- 제30회 대한민국 텍스타일대전 입선
- 제30회 충청남도산업디자인공예 입선
- 도시기억프로젝트 결과 보고전
(대전근현대사 전시와 기획 전시실4)

우리가 바라보는 바다 어느 지점에 몰려있는 미세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뚜껑과 섬유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바다가 하나로 연결되지 못한 채 미세플라스틱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모습을 묘사했다. 그 사이로 거친 파도 거품의 상태가 환경오염을 이야기한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사진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다양한 바다가 연상되게 파란색 계열을 모자이크 기법으로 구성하였고 '미세플라스틱에 의해 바다가 하나로 연결되지 않음'을 표현하기 위해 버려진 플라스틱 뚜껑을 녹여 하나의 덩어리(플라스틱섬)로 만들었다. 작업중 날리는 털 먼지를 보며 미세섬유에 대한 경각심이 들었다.



작품명(제작년도) : 바다-비연결(2023)

작업방식 : 모자이크, 아크릴, 니트

소재 : 플라스틱, 실, 아크릴물감

규격 : 700mm x 700mm

작가 : 남 수 황

작품명 | 기워진 오염(2023)



최효민

Choi Hyo Min

- 목원대학교 섬유패션디자인
- 제32회 대전미술대전 공예 입선
- 제7회 국제 니트아팅 공모전 특선
- 개인전, 'A-in Art project', 2023
(아인갤러리)
- 제38회 포항 청년작가회 정기전
(포항시립 중앙아트홀)

패스트패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사람들은 머릿속에 물음표를 그릴 것이다. 시대의 유행에 따라 패션아이템을 마구잡이로 만들어 내고 사라지게 만드는 패션. 우리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기후 시대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직관적으로 기록하고자 한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과 버려지기 직전에 놓인 옷들을 선택하여 조각 내었다. 조각난 옷들을 캔버스 위에 싸이킷 없어 옷 쓰레기가 잔뜩 쌓인 언덕을 표현하였고 그 위에 식물자수를 놓아 지켜야할 생명(시들어가는 식물)을 표현하였다. 마냥 아름답지 않은 복잡한 경관을 보여줌으로써 망가져 가는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했다.



작품명(제작년도) : 기워진 오염(2023)

작업방식 : patchwork

소재 : fabric

규격 : 700mm x 700mm

작가 : 최효민

작품명 | color your color(2023)



양 승 진

Yang Seung Jin

- 충남대학교 역사학과
- 쌍리 개인전 '파도, 꽃' , 2022. 11.
- 테미오래 개인전 '파도, 꽃' , 2023. 3.
- 갤러리 비범 단체전 '전시마켓 2023'

디지털 디자인 틀에서 프로그래머들이 적용한 '레이어(Layer)'는 획기적인 발상이다. 우리의 마음은 다양한 색의 꽃잎이 조화롭게 몸을 이루어 빛어낸 꽃인 것이다. 캔버스에 모델을 배치하고 주변부에 옷감을 색채와 재질을 이질적으로 비교 구성하였다. 각각의 옷감과 소재는 당신이 보유한 가능성이고, 작품 중앙(심부)에서 표출되는 빛의 색채는 당신을 빛나게 하는 잠재력이다. 당신은 이미 당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절묘하게 표현하는 매력을 지녔으며, 대부분이 이끌림 당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만을 위한 옷을 찾아내었을 때 그 무엇보다 빛난다. 대기업의 흘림, 화려한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자!



작품명(제작년도) : color your color(2023)

작업방식 : 섬유조합, 아크릴페인팅

소재 : 패턴섬유, 아크릴물감, 섬유물감

규격 : 910mm x 910mm

작가 : 양 승 진

작품명 | 비정상적 음식(2023)



배재영

Bae Jae Young

- 한남대학교 패션디자인
- '욕구불만: 역' 단체전 기획총괄, 작가, 2023
- NewYork International Design InvitationExhibition 작가, 2023
- Spain International Design Invitation Exhibition 작가, 2023

재사용이라는 명목하에 수출되는 옷의 대부분은 소비되지 않고 남아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드넓은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어야 할 소들이 버려진 폐섬유를 먹고 그렇게 키워진 가축들은 도축되어 우리의 식탁에 오른다. 폐섬유와 폐의복으로 스테이크를 작업하였다. 먹음직스럽고 우아하게 놓인 스테이크는 화려한 식탁의 실체다. 우리에게 의복은 더 이상 구매 생필품이 아니다. 값싼 의류가 넘쳐나는 현시대에 신중한 소비로 오래 입을 수 있는 질 좋은 옷 한 벌을 구매하고 애정을 가지고 오래도록 입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업하였다. 본인의 작업물이 무감각한 현대인의 두려움을 건드렸으면 좋겠다. 이 혐오스러움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고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작품명(제작년도) : 비정상적 음식(2023)

작업방식 : 재봉 및 공예

소재 : 캔버스에 섬유

규격 : 1200mm x 9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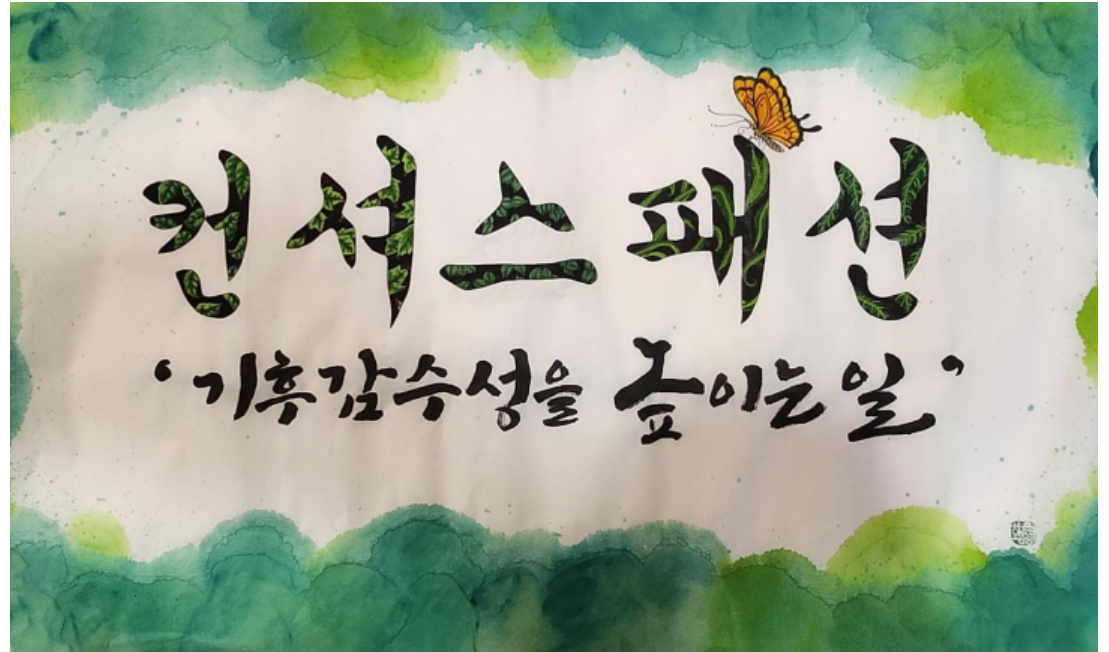
작가 : 배재영

작품명 | 컨셔스패션



황 은 영
Hwang Eun Young

- 대한민국캘리그래피아카데미협회 소속작가
- 정기전시, 2018~2023
(대한민국캘리그래피아카데미협회)
- 개인전 '몽유화~몽유의 그림이야기', 2023
- 전시참여 '세계서예전 비엔날레 천인천각전', 2023



작품명(제작년도) : 컨셔스패션(2023)

작업방식 : 캘리그래피

소재 : 화선지, 먹, 한국화물감

규격 : 600mm x 320mm

작가 : 황 은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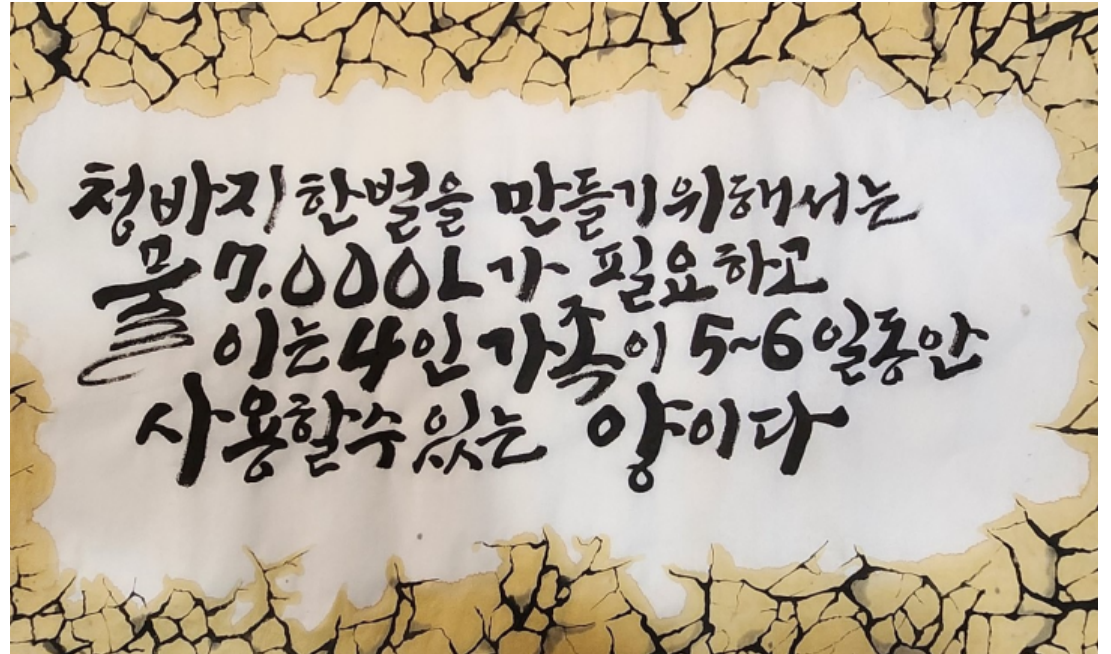
컨셔스 패션(Conscious Fashion)이란 '의식 있는'이라는 뜻의 단어 컨셔스와 패션의 합성어로 의류 소재 선정부터 제조 공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친환경으로 만들고 소비하자는 의식 있는 패션을 뜻합니다. 콩 섬유로 만든 실크, 옥수수로 만든 속옷, 재활용 등 환경을 살리는 작은 변화로 기후 감수성을 높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 또한 자연의 푸르름을 담아보았습니다.

작품명 | 매마르다



황 은 영
Hwang Eun Young

- 대한민국캘리그래피아카데미협회 소속작가
- 정기전시, 2018~2023
(대한민국캘리그래피아카데미협회)
- 개인전 '몽유화~몽유의 그림이야기', 2023
- 전시참여 '세계서예전 비엔날레 천인천각전', 2023



작품명(제작년도) : 매마르다(2023)

작업방식 : 캘리그래피

소재 : 화선지, 먹, 한국화물감

규격 : 600mm x 320mm

작가 : 황은영

청바지 한 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어마어마한 양의 물, 7000L

염색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며 매말라가는 지구를 위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옷들을 지워보면 어떨까?

작품명 | 나는 기후위기를 또 샀다



황 은 영
Hwang Eun Young

- 대한민국캘리그래피아카데미협회 소속작가
- 정기전시, 2018~2023
(대한민국캘리그래피아카데미협회)
- 개인전 '몽유화~몽유의 그림이야기', 2023
- 전시참여 '세계서예전 비엔날레 천인천각전', 2023

습관처럼 유행 따라 쇼핑하는

의류 산업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0%나 차지한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지구가 더워지는 지금, 터전과 먹을거리가 사라져가는 북극곰들의 아픔을 담아보았습니다.



작품명(제작년도) : 나는 기후위기를 또 샀다(2023)

작업방식 : 캘리그래피

소재 : 화선지, 먹, 한국화물감

규격 : 600mm x 320mm

작가 : 황은영

작품명 | 중독된 코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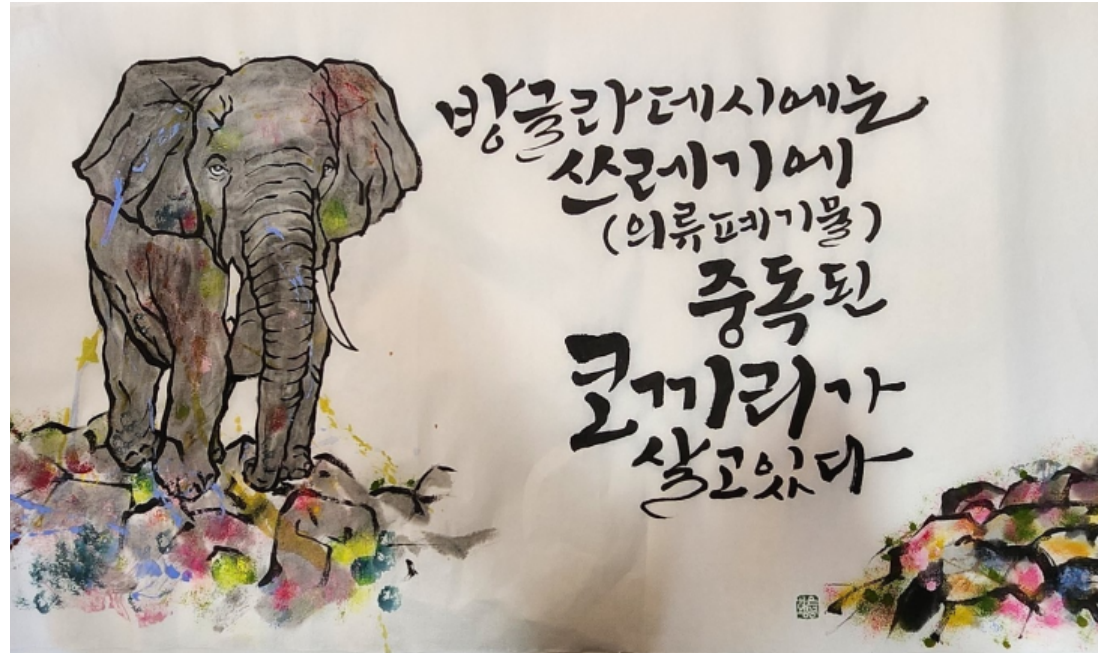


황 은 영
Hwang Eun Young

- 대한민국캘리그래피아카데미협회 소속작가
- 정기전시, 2018~2023
(대한민국캘리그래피아카데미협회)
- 개인전 '몽유화~몽유의 그림이야기', 2023
- 전시참여 '세계서예전 비엔날레 천인천각전', 2023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 산을 뒤져 옷이나 쓰레기를 먹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배를 채우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죄 없는 동물들이 많아요.

더 늦기 전에 고장 난 지구가 멈추기 전에 돌려놓으려 애쓰는 시간이 필요해요.



작품명(제작년도) : 중독된 코끼리(2023)

작업방식 : 캘리그래피

소재 : 화선지, 먹, 한국화물감

규격 : 600mm x 320mm

작가: 황은영

작품명 | 페페트병(2023)



김민경

-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 (사)한국문화예술가 협회 캘리그래피 캘리연구원장
- 대한민국캘리그래피아카데미협회 전문위원
- 정기회원전_이중섭미술관, 2020.02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가협회)
- 전시 'ARTISTS 사람사는 세상展', 2021.5
(미루아트센터 특별관, 창작스튜디오제주)
- Hands Artist 작품전 수작, 2023.08
(갤러리라메르 제2전시실, 경인미술관)

요즘 페페트병 소재인 '재생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든 패션 상품들이 제작되고 있다. 실제로 페페트병 도안을 넣은 재활용 소재 원단 셔츠를 판매하면 좋을 것 같아 작품으로 표현해 봤다.

먹으로 표현한 티셔츠에 직접 500ml 생수병을 찍어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이 작품이 '탈(脫)플라스틱'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품에 넣은 무늬 또한 기하학적이거나 충분히 패션 상품 디자인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품명(제작년도) : 페페트병(2023)

작업방식 : 캘리그래피(수묵)

소재 : 화선지, 먹, 반전 먹

규격 : 320mm x 600mm

작가 : 문득캘몽 김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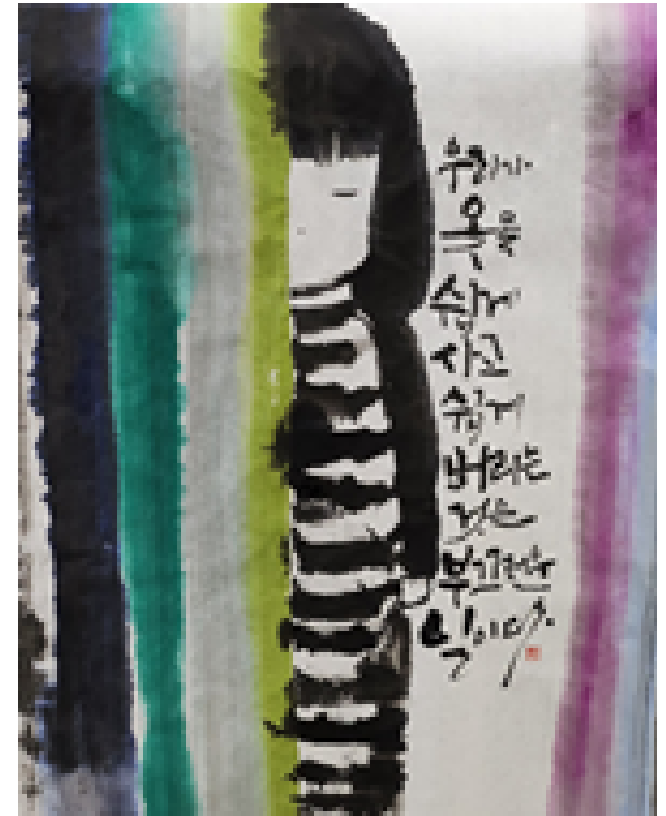
작품명 | 부끄러움(2023)



김민경

-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 (사)한국문화예술가 협회 캘리그래피 캘리연구원장
- 대한민국캘리그래피아카데미협회 전문위원
- 정기회원전_이중섭미술관, 2020.02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가협회)
- 전시 'ARTISTS 사람사는 세상展', 2021.5
(미루아트센터 특별관, 창작스튜디오제주)
- Hands Artist 작품전 수작, 2023.08
(갤러리라메르 제2전시실, 경인미술관)

옷장에 언제 샀는지 입지도 않은 옷들이 많이 있다. 옷을 꺼내기조차 힘들 정도로 뻑뻑한 옷장에서 순간의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모습을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가끔 새 옷을 위해 공간 확보 차원에서 정리하고 비워낸다. 이런 과정들은 고쳐지지 않고 자꾸 반복된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작품에 담았다. 여러 색의 물감들을 사용해 많은 옷을 표현하고 작은 틈을 통해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는 표정의 사람을 표현하였다.



작품명(제작년도) : 부끄러움(2023)

작업방식 : 캘리그래피(수묵)

소재 : 화선지, 먹, 한국화 물감

규격 : 320mm x 600mm

작가 : 문득캘몽 김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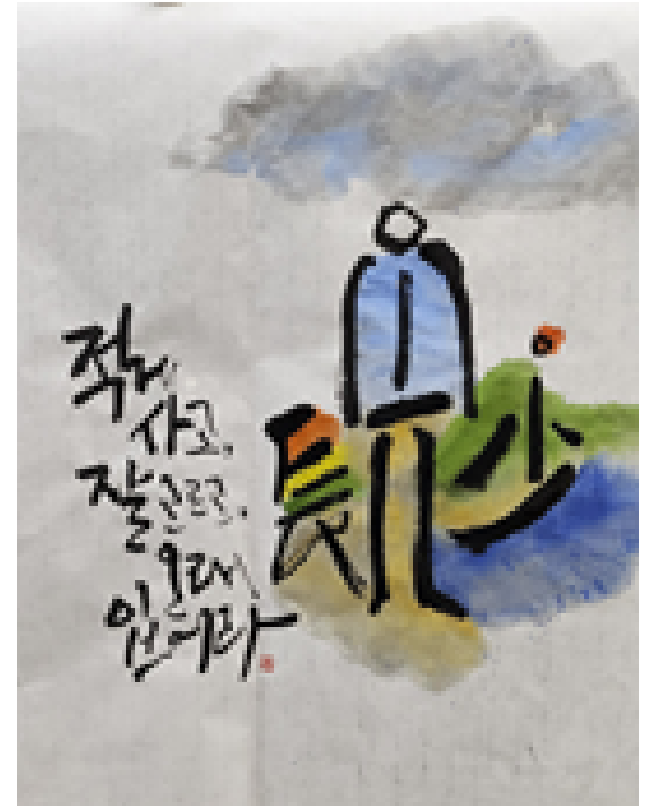
작품명 | 장(옷)소(2023)



김민경

-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 (사)한국문화예술가 협회 캘리그래피 캘리연구원장
- 대한민국캘리그래피아카데미협회 전문위원
- 정기회원전_이중섭미술관, 2020.02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가협회)
- 전시 'ARTISTS 사람사는 세상展', 2021.5
(미루아트센터 특별관, 창작스튜디오제주)
- Hands Artist 작품전 수작, 2023.08
(갤러리라메르 제2전시실, 경인미술관)

한자와 한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옷' 글자를 사람으로 그리고 '長(오래도록 장)' 한자를 옷을 개어 쌓아 놓은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少(적을 소)' 한자를 자연(산, 강, 땅, 태양 등)으로 상징하였다. 가운데 사람 모양 '옷' 글자의 팔이 '長'과 '少'를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 옷을 적게 사고, 잘 고르고, 오래 입으면, 기후 위기(먹구름)에서 자연을 지켜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나의 올바른 선택이 옷 쓰레기를 줄이고 패션 산업에서 파생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음을 문자 추상 기법을 통해 표현하였다.



작품명(제작년도) : 장(옷)소(2023)

작업방식 : 캘리그래피(수묵)

소재 : 화선지, 먹, 한국화 물감

규격 : 320mm x 600mm

작가 : 문득캘몽 김민경

작품명 | 회색 사막(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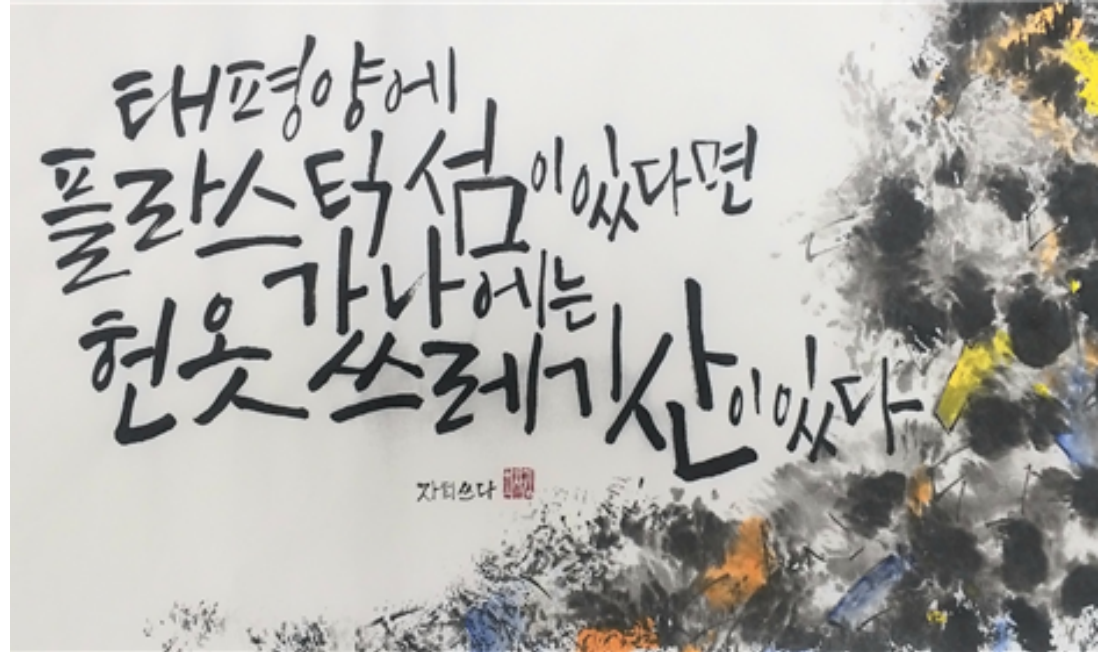


김 자 희
Kim Ja Hui

- 한국미술협회, 인천미술협회, 한국화 캘리그래피 작가
- 전시 '인천아트시즌 전, 2022 (인천 예술회관)
- 전시 '인천/하와이 국제미술교류전', 2023 (가온갤러리)
- 전시 '제57회 한국미술 협회전', 2023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최근 문제 되는 패스트패션 의류들의 과잉생산과 소비로 많은 양의 의류 폐기물들이 버려지고 있다. 버려진 의류들은 우주정거장에서조차 지구의 회색 사막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양의 쓰레기 산이다.

이러한 의류 폐기물들은 지구온난화, 토양 및 대기오염 등으로 지구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 작품은 대중들에게 패스트패션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량 생산된 옷들이 우리 지구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알리고자 가나의 헌 옷 쓰레기 산을 먹의 농담으로 표현했다.



작품명(제작년도) : 회색 사막(2023)

작업방식 : 캘리그래피(수묵)

소재 : 한지, 먹, 한국화물감

규격 : 600mm x 32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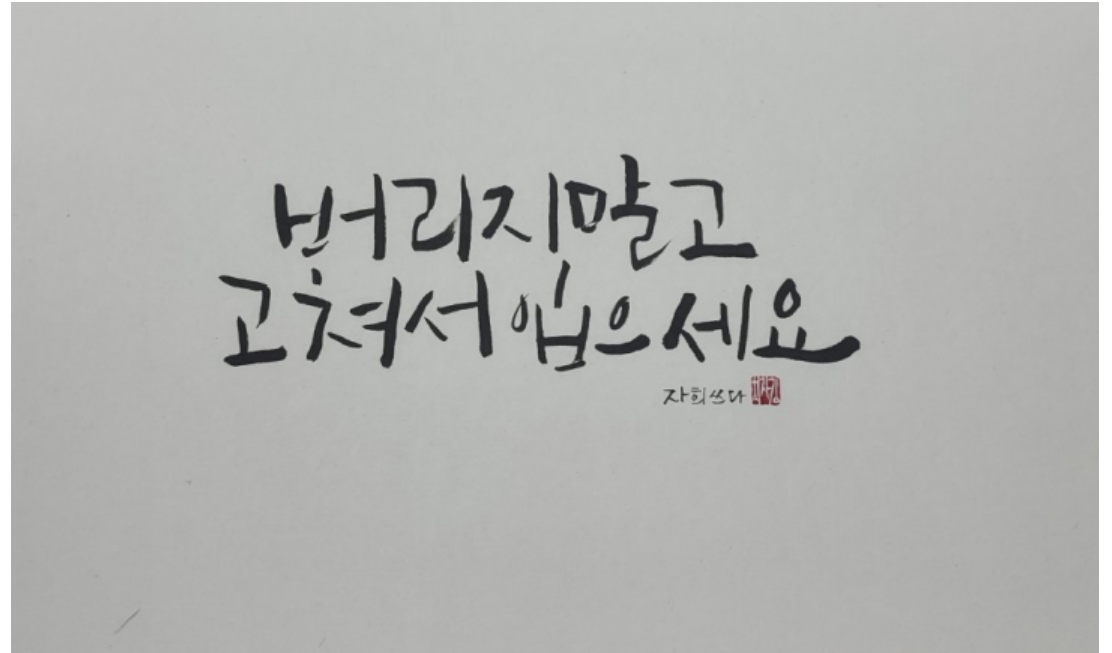
작가 : 김 자 희

작품명 | 의류소비(2023)



김 자 희
Kim Ja Hui

- 한국미술협회, 인천미술협회, 한국화 캘리그래피 작가
- 전시 '인천아트시즌 전, 2022 (인천 예술회관)
- 전시 '인천/하와이 국제미술교류전', 2023 (가온갤러리)
- 전시 '제57회 한국미술 협회전', 2023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작품명(제작년도) : 의류소비(2023)

작업방식 : 캘리그래피

소재 : 한지, 먹

규격 : 600mm x 320mm

작가 : 김 자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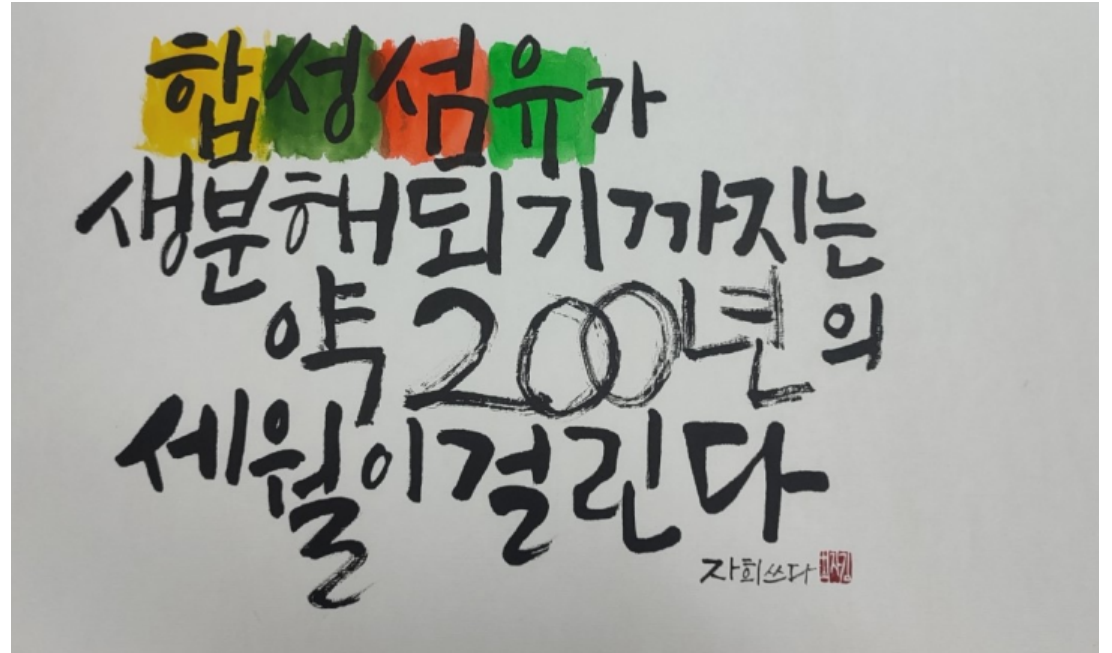
일상 속 환경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의류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옷을 수선해 입는 재활용이 지구환경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옷을 아끼고 수선하는 것만으로도 과소비뿐 아니라 탄소 발자국을 30%나 줄일 수 있다.

작품명 | 합성섬유와 200년(2023)



김 자 희
Kim Ja Hui

- 한국미술협회, 인천미술협회, 한국화 캘리그래피 작가
- 전시 '인천아트시즌 전, 2022 (인천 예술회관)
- 전시 '인천/하와이 국제미술교류전', 2023 (가온갤러리)
- 전시 '제57회 한국미술 협회전', 2023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작품명(제작년도) : 합성섬유와 200년(2023)

작업방식 : 캘리그래피

소재 : 한지, 먹

규격 : 600mm x 320mm

작가 : 김 자 희

패스트패션 의류의 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터 등이다.

이 합성섬유는 버려진 후 의류 폐기물로 썩는 과정에서 수많은 미세플라스틱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우리가 화학섬유를 쓰지 않기를 원한다 해도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지구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실천들을 고민하고자 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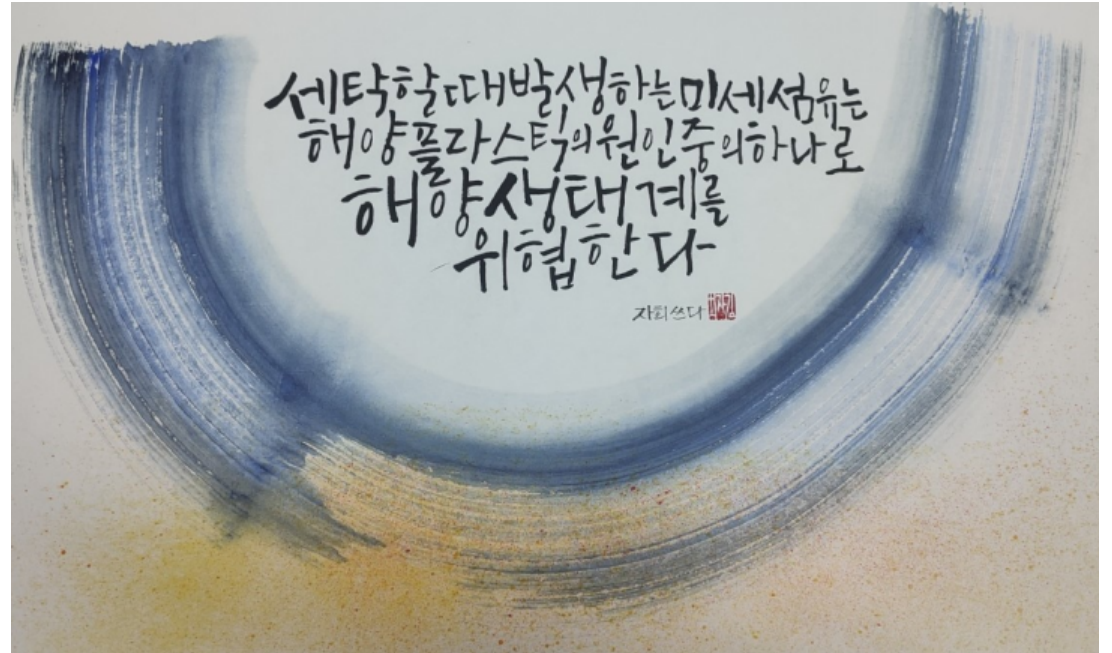
작품명 | 바다속 미세플라스틱(2023)



김 자 희

Kim Ja Hui

- 한국미술협회, 인천미술협회, 한국화 캘리그래피 작가
- 전시 '인천아트시즌 전, 2022 (인천 예술회관)
- 전시 '인천/하와이 국제미술교류전', 2023 (가온갤러리)
- 전시 '제57회 한국미술 협회전', 2023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작품명(제작년도) : 바다속 미세플라스틱(2023)

작업방식 : 캘리그래피(수묵)

소재 : 한지, 먹, 한국화물감

규격 : 600mm x 320mm

작가: 김 자 희

해양 생태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탁이다. 세탁 횟수를 줄이고 가능한 세제를 덜 쓰는 방법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우리가 세탁 세제로 사용하는 가루나 액체 세제, 캡슐 세제 등도 튜브 파우치나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다. 또한 세탁 후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물들의 장기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 수산 물들이 다시 우리 인체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자 했다.